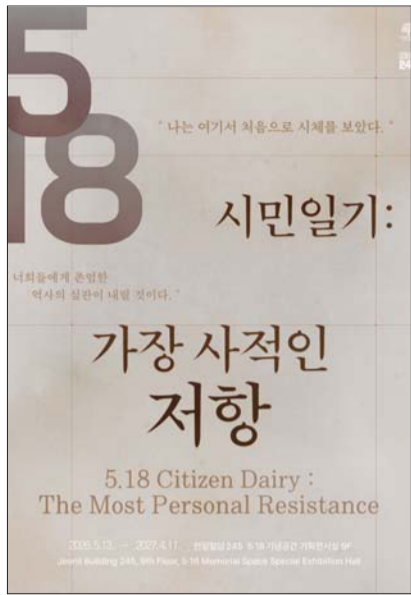


'5·18 시민일기' 첫 공개... 평범한 이웃의 '가장 사적인 저항'

21명 오일 증언 한자리에 주부·학생·상인 시선 담아 박용준 등 미공개 자료 첫선 음성·영상으로 항쟁 재구성 12·3 계엄 거리 연대 조명



5·18기록관 '주부, 직장인, 대학생, 초등학교생, 경찰 일기' 전시. /뉴시스

5·18민주화운동 당시 평범한 시민들이 남긴 일기가 광주의 기억을 다시 증언한다.

기록관은 13일부터 내년 4월11일까지 전일빌딩245 9층 기획전실에서 '5·18 시민일기-가장 사적인 저항'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언론 통제와 지역 고립 속에서 시민들이 직접 기록한 5·18의 기억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전시장에는 주부와 대학생, 직장인, 상인, 초등학교생, 경찰 등 21명이 남긴 일기가 공개된다. 기록에는 계엄군 진입

소식에 거리로 나선 대학생의 경험과 공수부대 진압 장면을 목격하며 시위에 참여한 직장인의 기억, 젊은이들

의 죽음을 바라보며 느낀 불안과 분노 등이 담겼다.

목포에 거주하던 한 가정주부가 전해 들은 5·18 상황도 전시에 포함됐다. 짧은 해방 기간 동안 시민들이 체감한 공포와 긴장감, 항쟁 현장을 둘러싼 분위기 역시 당시 기록을 통해 재구성된다. 기록관은 개인의 일상이 역사적 증언으로 남겨졌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이번 전시를 기획했다.

새롭게 공개되는 자료도 포함됐다.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에 영감을 준 박용준의 일기와 5·18을 증언하는 윤태원의 기록, 공권력 입장에서 당시 상황을 남긴 유영옥의 일기 등이 처음 공개된다. 항쟁 현장을 지킨 정종연·김의석의 기록도 함께 전시된다.

전시는 3부로 나뉘어 진행된다. 1부 '보고 듣는 역사'에서는 9명의 일기를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2부 '함께 쓴 역사'에서는 1980년 5월 10일부터 29일까지 이어진 항쟁 과정을 13명의 기록으로 소개하며 이를 시각화한 6분18초 분량의 영상도 상영한다.

3부 '우리가 지킨 오늘'은 1980년 5월의 기록과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거리로 나온 시민들의 연대를 연결해 조명한다. 기록관은 과거의 민주화 경험이 현재 사회의 시민 행동과도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호균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은 "이번 전시는 21명의 일기를 소리로 들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며 "평범한 이웃들이 증언하고 있는 5·18의 정신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양수영 기자 ysn6131@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광주시 5·18 당일 대중교통 무료 운행

5·18민주화운동 46주기 당일 광주지역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광주시는 5·18의 나눔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기념행사가 치러지는 18일 시내버스와 도시철도(지하철),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을 무료로 운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광주시는 시민을 포함해 방문객이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교통카드시스템을 정비했으며 운전원 등도 교육했다. /광주=양수영 기자

경주시 '행복톡톡 아이디어' 전국 공모

경북 경주시가 내달 29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행복톡톡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 공모는 포스트 APEC 등 시정과 관련해 창의적 제안을 받아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는 경주, 시민이 더 행복한 경주' 실현을 목표로 도시 전반에 대한 정책을 폭넓게 수용할 계획이다. 해당 분야는 글로벌 문화·관광도시와 포스트 에이펙(POST APEC), 미래산업과 지역경제, 부자농어촌, 매력적인 도시개발, 인구정책과 행복 도시 등 7개로 구분된다. 접수된 제안은 실무부서 검토와 심사를 거쳐 10월 중 개별 또는 시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경주(경북)=김태우 기자 ktu3987@

대전시교육청 영유아 문해·돌봄 지원 강화

대전시교육청은 이달부터 '2026년 대전 아이행복프로젝트'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해 유보통합 실행 기반 강화 사업 일환으로 시작했다. 대전 관내 전체 영유아가 양질의 교육·보육 서비스를 받도록 마련했다. 올해는 교육 과정 운영 및 교사 역량 강화와 이용시간 확대를 중점 과제로 삼아 문해와 돌봄 2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운영한다. 사업 신청을 한 399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기관별 평균 300만원, 12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사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총 5회에 걸친 온라인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교사역량 강화를 위해 독서 기반 문해 교육 연수를 실시한다. /대전=양대성 기자 zzica@m

울산시 소상공인 안정자금 300억 추가

울산시는 3차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으로 300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하면서 올해 지원 규모가 1100억원으로 늘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중동 사태 장기화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 추가 금융 지원을 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도·소매업과 음식업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제조업·건설업 등은 10인 미만 업체다. 지원 한도는 업체당 최대 8000만원이며 시는 대출이자 일부를 1.2~2.5% 범위에서 지원한다. /울산=박기선 기자 metrobusan7@

부울경 초·중·고교 사교육비조사 실시

동남데이터청, 6150여 명 대상 내달 2일까지 인터넷 조사 진행

동남지방데이터청은 12일부터 내달 2일까지 부산·울산·경남지역 학교 267곳의 학부모 615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1차 초·중·고교 사교육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007년부터 실시된 이 조사는 올해도 5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할 예정이다. 보다 편리하게 응답할 수 있도록 인터넷 조사를 기본으로 운영하고 있다.

조사 결과는 내년 3월 공표될 예정이다.

국립부경대학교는 개교80주년과 통합 30주년을 맞아 11~14일 봄축제 대동제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축제는 부경대총학생회 주관으로 백경이의 스케치북, 부경가왕, 부경듀엣, 플라마켓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지난 11일 개막식에서는 가수 공연과 대규모 드론쇼, 불꽃놀이 등이 진행됐다.

부산대학교는 지난 11일 서울 국회 체험관에서 열린 '제2회 대한민국 인공지능 혁신대상' 시상식에서 AI혁신 종합대상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

부산대는 급변하는 인공지능(AI) 기술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지난해 6월부터 'PNU AI 대전환'을 본격 추진하며, 교육·연구·행정 전 영역의 구조적 혁신을 목표로 한 통합 전략 'PNU-AX 마스터플랜 A.U.R.A.'를 수립·실행하고 있다.

대학은 직접 기획·구축·운영하는 온프레미스 기반 AI 서비스 체계를 마련하고, 구성원 누구나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대학 전반의 AX 혁신모델을 구현한 성과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전했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대구, 오토바이·미싱골목 간판 정비 완료

주거 안전·상권 활성화 사업 추진

대구 중구는 인교동 오토바이골목과 대신동 미싱골목 일대의 경관을 개선하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간판개선사업'을 마무리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지난해 1월부터 시작된 이번 사업에는 총사업비 3억8000만원이 투입됐다. 중구는 해당 골목 680m 구간 내 83개 업소를 대상으로 무질서한 노후·불법 간판을 철거하고, 각 업소의 개성을 살린 벽면 간판 90개와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새롭게 설치했다.

특히 간판 교체와 함께 노후화된 건물 입면 정비도 병행해 거리 경관의 완성도를 높였다. 중구는 향후 2년간 하자보수를 진행하고 신규 불법 광고물 설치를 막기 위한 모니터링을 이어갈 계획이다.

/대구=김강석 기자 presskim@

부산, 수출 中企 물류비 부담 덜다

운임 상승 등 애로 해소 집중

부산시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물류 차질과 해상운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수출 중소기업 지원에 나선다.

부산시는 수출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상반기 집중 지원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수출입 애로 중소기업 바우처 지원사업을 8억9000만원, 해외물류비 지원사업을 4억5600만원,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사업을 12억8400만원 규모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또 기존 월별 접수·심사 방식에서 벗어나 올해 전체 물량을 일괄 접수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기업들이 보다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절차도 개선

한다.

부산시가 지난 3월 중동전쟁 이후 지역 수출 중소기업 피해 사례를 모니터링 결과 물류 차질과 운임 비용 상승 등 물류비 부담이 전체의 69.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대금 회수 지연(17.4%), 계약 차질(13%) 등이 주요 애로사항으로 접수됐다.

시는 물류 애로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해외물류비 지원사업' 수혜 기업이 지원받지 못한 수출 건에 대해서는 '수출입 애로 중소기업 바우처 사업'을 통해 추가 물류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자체 최초로 '원부자재 공동구매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시는 원부자재 공동구매를 통해 물류 효율을 높이고 지역 기업의 비용 절감을 지원할 계획이다. /부산=이도식 기자

포항, 로봇 특화단지 유치 속도

AI로봇기업협의회 첫 회의

포항시는 지난 11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제1회 포항AI로봇기업협의회'를 열고 로봇 산업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3월 협의회 발족 이후 처음 열린 공식 회의로, 포항시의 로봇 산업 육성 방향을 공유하고 기업 간 기술·비즈니스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포항지역 로봇기업 10여 개사와 한국로봇융합연구원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포항시 로봇 산업 육성 전략 발표 ▲고레로보틱스(주) 혁신 사례 공유 ▲로봇 산업 발전 방향과 기업 간 협력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포항시는 발표를 통해 철강·이차전



11일 포항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제1회 포항AI로봇기업협의회' 참석자들이 포항형 AI로봇산업 육성과 기업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지 등 고위험·고중량 산업군과 우수한 산·학·연 인프라를 기반으로 로봇 기술 상용화와 실증에 적합한 도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영일만일반산업단지과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강소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로봇 특화단지 유치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포항(경북)=김진곤 기자 jingon@